

## <대학국어> 강좌의 현황과 개선 방안



강동민  
(재료공학부 04)

### 서론

서울대학교의 대학 국어 강좌를 수강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며, 모든 활동의 수행에는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현재 대학 국어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학 국어의 강좌의 목표는 남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기 생각을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며 상용 한자를 읽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글쓰기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본고는 대학 국어가 그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 국어 수업의 내용과 방식을 검토하고 좀더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과목으로 나아가기 위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 대학 국어 강좌 운영 현황과 개선점

대학 국어 강좌에서 학생들은 개요짜기, 요약하기 등의 글읽기 활동과 정의, 비교, 분류, 분석, 묘사, 서사, 논증 등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연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게는 500자 정도에서 많게는 1500자 이상의 에세이를 4~6편 정도 쓰게 되며 한 편의 서평과 조별 활동을 통해 조 단위로 완성하는 소논문 한 편을 쓰게 된다. 이것은 고등학교 시절까지 글쓰기의 경험을 갖지 못하던 대학 새내기들에게 글쓰기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갖지만 글쓰기에 익숙하지 못한 대학 초년생들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양이다. 이러한 양적인 과다함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부족함을 가져오고, 결국 강의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 각 강의 항목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면 심도 있는 학습의 기회가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수강생 입장에서는 자칫 최소한의 내용조차 배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다루려고 하다보니 수강생은 제대로 된 성취 없이 시간만 소모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커리큘럼의 양적인 과다함은 과제물과 글쓰기 실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습 성취 효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과제의 양이 너무 많으면 사실상 하나하나의 과제를 모두 열심히 수행하기가 힘들다. 소논문이 좋은 예가 된다. 소논문은 단편의 글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대학 국어 강좌의 경우 커리큘럼에 너무 많은 항목을 포함하려 하다 보니 소논문 집필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과제를 통한 성취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시간에 쫓기며 과제를 수행해나간다면 학습적 성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글쓰기 실습 활동도 거의 주당 한 회씩 배당이 되어 있는데, 이는 한 번의 글쓰기 실습을 마치고 그 글에 대한 토론 혹은 첨삭지도, 남의 글 읽어보기 등의 과정을 통해 내용을 깊이있게 소화해 내기도 전에 또다시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새로운 글을 써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글쓰기 실습이 이어진다면,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해내기도 힘들고, 오히려 타성에 젖어 글을 쓰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교수의 입장에서 과다한 과제와 실습의 양이 과다하면 효과적인 지도를 해주기 힘들다. 첨삭이나 교정 지도와 같은 개별적인 지도가 특히 그러하다. 학생들이 써내는 글의 양이 많다면 하나하나의 글에 대한 자세한 교정 지도가 힘들어진다.

\* 이 글은 2005년 2학기 <대학국어> 과제로 쓴 소논문의 논지를 요약한 것이다.

원래 논문은 재료공학부 강동민, 김동연, 김은하, 김진철이 공동으로 작성한 A4용지 20쪽 분량의 글이었음을 밝힌다.

대학 국어의 커리큘럼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대학 국어의 강의 계획서를 보면, 상호 배타적 구분의 폐쇄적 장르관에 따라 글쓰기 교육 항목이 나눠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맥락(텍스트 주변의 외적인 상황)에 대한 측면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구분을 해 놓으면 수업에서도 서로 고립된 영역으로 강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실제의 글쓰기는 사회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텍스트 외적인 맥락을 함께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글쓰기 능력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글쓰기 교육은 교육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는데, 그 중 한 가지는 글쓰기 실시시의 소재 부족 현상이다. 글쓰기 당사자는 텍스트 내적 유형에 따른 범주만 제시 받고 글을 쓰도록 요구받을 때 글을 쓸 거리가 없음을 당황하게 된다. 논증하기를 해야 하는 시간에 논증할 거리가 없음을 고민을 하는 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논증 형식의 글이 사회문제에 대한 추상적인 논증 시도로 끝나고 마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국어 수업이 학습자간의 수준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1학년 학생에게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볼 문제이다. 같은 전공의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글쓰기 능력의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은 학문의 기초 과목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대학 국어의 교육적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 대학국어 강좌의 개선 방안

먼저 강좌의 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각 교육 항목에 대해 충분한 교육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커리큘럼의 몇 가지 항목을 통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커리큘럼에서 구분된 글의 유형들은 일상에서 맥락적으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묶는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항목의 통합과 함께 일부 항목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삭제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한자시험을 들 수 있다. 항목의 삭제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대신에 항목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커리큘럼의 내용적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장르 중심적 접근법을 개량할 필요가 있다. 장르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화 공동체에서의 장르를 체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효과적인 것이 바로 토론의 과정이다. 토론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맥락을 제시하기 때문에 텍스트 유형과 맥락이 통합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자의 수준별 학습을 위한 수준별 분반을 운영하거나 단과대별 혹은 전공별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전공별, 수준별 맞춤형 교육 내용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결 어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서울대학교의 글쓰기 교육에서 대학국어의 중요성 또한 강조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국어의 개선과 효율적 운영은 끊임없이 고민되고 개선되어 나가야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